

박영숙 의원
IPU 참석차 북한 방문한
이해에서 출발
통일, 서로의 자아



신 민당의 박영숙 최고위원(60세, 한백교회)의 고향은 평양.

박 의원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웠던 그곳을 떠나 율남한 것은 해방 후 2년 뒤인 '47년 가을.

햇수로 44년, 그리운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찾아가지 못한, 실향민의 한사람이었던 박 의원이 지난 4월 27일부터 9일간 북한에서 개최된 국제의원연맹(IPU) 총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60분만에 이르러서야 꿈에도 그리던 고향땅을 밟았다.

“짧고 제한적인 일정이 돼나서 뭐라 말하기는 뭇한테... 아무튼 많이도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집처럼 드나들던 예배당이나 학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더군요. 넉넉하고 따뜻한 고향의 정감같은 것도 예전같지 않았고...”

44년만에 찾은 평양에 대한 그녀의 인상은, 대동강 맑은 물만 예와 다름없이 흐르고 있을 뿐 분단이 가져온 이질감

의 골은 매우 깊은 것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북한의 분위기가 다소 어둡고 특히 사람들의 표정에서, 전체주의 사회가 갖기 쉬운 어떤 획일적인 면들을 읽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에게서 ‘따뜻하고 소박한’ 심성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에도 봉수교회 등 교회가 있지만 이번에 확인한 바로는 완전한 교회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아직도 지하에 숨어있는 가정교회 등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북한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선교의 불길이 꺼지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통일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작은 부분에서부터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며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덧붙였다. ☿